

3. G6(6개국 市場會合:Six Markets' Meeting)의 出帆

- (現況 및 目的) 최근 아·태지역의 환율 안정을 위해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호주 등이 참가하는 6개국 시장회합이 결성되었음
 - 멕시코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나아가 거시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각국의 공조를 그 기본 목적으로 삼음
- 일본은 실질적인 엔화 안정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참여
- (G6의 役割 및 展望) 6개국 시장 회합은 단순한 환율 안정을 위한 모임보다는 이 지역의 금융 전반에 걸친 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과 일본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일관적인 정책 조합은 어려울 것임
 - 1998년 싱가포르 회의에는 우리도 회원국으로 참여할 전망
- (우리의 選擇) 자본 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외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외부적인 충격 완화의 조치로서 국제 환율 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표명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이용해야 할 것임

1997년 3월 일본의 주도하에 아·태지역의 환율안정을 위해 Six Markets' Meeting이 결성

- (현황 및 목적) 최근 일본의 주도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하여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발전, 자본이동의 조정, 그리고 이에 관련된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의 공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Six Markets Meeting"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함
 - Six Markets Meeting의 참가국은 일본과 호주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홍콩, 중국과 미국임
 - OECD 회원국이며 세계 12대 수출국인 한국이 이러한 협의체에 참가하지 못한 점은 우리의 금융시장이 규모면에서나 운영면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인식 때문임
- 소위 G6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협의체는 1992년부터 일본 호주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의 고위 금융 관계자들이 환율안정을 위한 회합을 시도

이 협의체는 미국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환율안정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공조도 계획하고 있음

이는 최초의 개도국을 포함하는 금융협의체이며 중국을 다자간 협상 Table에 끌어들이 수 있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일본은 이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고 하고 있음

해 왔는데 이를 발전시켜 중국과 미국을 포함시킴으로 인해 이 지역의 환율안정과 거시경제정책의 공조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려는 데 주력하고 있음

- 특히, 아·태지역에서 1994년 멕시코 사태와 같은 금융 위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환율의 변동에 따른 금융 시장 안정화를 추구함

○ (意義) 6개국 시장회합의 결성은 최초의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거시정책과 금융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이전의 환율안정과 거시경제정책의 공조는 대부분 선진국 국가들 중심이었음(G7 회담 등)

○ 또한 중국이 최초로 거시정책 및 금융정책 협의체에 참가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할 것임

- 이는 물론 올해 7월 이후 중국에 귀속되는 홍콩 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는데 기인한 것임
- 그러나 중국의 참여는 최근 무역 흑자를 통해 대규모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였음
- 중국을 다자간 협상 기구, 특히 WTO에 가입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이번에 G6에 참가했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일본의 의도) G7의 회원국으로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율 안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게된 까닭은 미국과 EU국가들간의 협상에서 일본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1995년 지나친 일본 엔화의 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G7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엔화 구입(또는 미달러화 매각)은 엔화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함

- 또한 최근의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부진은 일본의 '엔블럭'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계기라고 판단하고 있음

○ (미국의 의도) 일본이 6개국 시장회합을 통해 이 지역의 환율안정과 정책 공조를 이루겠다는 의도가 확고한 반면, 미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미국 대표로 참석한 Lawrence Summers는 G6의 역할은 단순한 기술적인 금융 관련 이슈에 국한시켜야 된다고 주장함
- 이는 미국이 환율안정 특히 엔/달러의 안정을 위한 협의는 G7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임
- 결국 미국의 의도는 G6를 통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는 경우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의 협의 사항을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됨

회원국의 경제 역량 면에서 엔/달러의 실질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나, 미국과 일본의 의견 조정이 관건임

○ (G6의 역할 및 전망) 현재 G6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각국의 거시 정책 및 금융 정책이 상호 공조를 통해 환율 안정을 이루려 한다면 이는 특히 엔/달러화에 대한 효과적인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현재의 회원국들의 보유한 외환보유액은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국가들의 외환거래량은 전세계 외환 거래의 41%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엔화에 대한 거래는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요 금융시장의 외환 거래 형태(1992년 기준)>

(%)

	런던	도쿄	뉴욕	싱가폴
Dollar/ DM	24	10	34	29
Dollar/ Pound	17	4	9	12
Dollar/ Yen	12	72	23	27
Dollar/ Swiss fr	6	4	8	9
그 외 통화	41	10	26	23
총	100	100	100	100

자료: Datamonitor, Bank of England

- 6개국의 무역구조를 분석해보면 미국과 일본이 나머지 4개국과 전반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엔/달러 환율 정부 개입 공조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경우 싱가포르와는 어느 정도의 무역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일본은 홍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음
 - 엔화의 약세는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반면, 미국의 적자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미국에게는 불리할 것임
 - 따라서 향후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내부갈등을 해소하고 환율안정과 나아가서 금융시장 안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임

- 그러나 과거 G7 회의가 단순한 환율 안정을 위한 선진국들의 모임에서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협의체 형태로 발전하였던 점을 상기한다면, G6 또한 회원국들의 의지에 따라 '아시아의 G7'과 같은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싱가포르 모임부터 회원국으로 참가할 것을 고려중임

<6개국 무역 구조 Matrix>

(단위: 백만 \$, 1996년 2/4분기)

Import \ Export	U.S.	Japan	Hong Kong	Singapore	Australia	China	Korea	World Total
U.S.	-	20,797	4,192	5,449	944	3,513	8,153	201,730
Japan	26,855	-	6,626	5,891	1,907	4,970	7,928	99,593
Hong Kong	9,169	2,728	-	1,260	549	15,727	310	44,307
Singapore	5,677	2,708	2,686	-	708	807	673	30,835
Australia	3,061	3,599	498	485	-	848	1,591	15,307
China	6,179	9,475	18,147	1,006	366	-	2,134	35,803
Korea	5,493	4,063	3,122	1,664	446	2,838	-	33,459
World Total	157,220	87,740	49,993	32,606	15,032	33,843	37,066	-

자료: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Quarterly, IMF, December 1996

국가간의 정책 조합
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계기

- (우리의 선택) OECD 가입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자본 자유화로 인한 환율의 변동폭 증가는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 개방 경제 하에서 정부의 개별 거시 경제 정책들은 정책의 상충이 증가하여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경제 정책 수단이 줄어들고 있음
 -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위험 증가에 따른 통합적인 위험 관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됨
 - 외적 충격에 대해 충격 완화의 경험이 미비한 우리 경제에 있어 내부적인 충격완화의 조치뿐 아니라 외부적인 조치 역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외부적 조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의 국제적인 경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외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따라서 G6에 적극 참여하여 그 동안 외생변수로 취급되어져 왔던 엔/달러의 정책적 변동을 내생변수화 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양 두 용)